

세계지재권기구 국제특허 출원 온라인 접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지재권기구(WIPO)는 2004년 '특허협력 조약(PCT)' 발효를 계기로 각국 기업이 출원하는 국제특허의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전하고 있다.

세계지재권기구(WIPO)는 신청자가 WIPO나 자국 특허청에 국제특허를 출원하면 1백22개 WIPO 가맹국 전체에 동시 출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허협력 조약'이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각국 기업이 출원하는 국제특허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세계지재권기구는 지난 8월 25일 네덜란드 필립스 사(社)의 출원을 인터넷으로 처음 접수했고, 올해 말까지 50개 기업에 한해 영어로 된 출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이후 '특허 온라인 접수시스템'의 전면 가동에 대비하여 데이터 보호 등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일본 미쓰비시신탁은행 기업보유 특허권 저작권 신탁재산으로 운용

일본 미쓰비시신탁은행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운용, 자금을 조달 하는 업무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지난달 7일 보도했다.

특허권 등의 신탁업무는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특허 등을 창업자금과 운용자금 조달에 이용하는 새로운 영업방식으로 지적재산권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은 평가하고 있다.

미쓰비시신탁은행이 추진 중인 운영방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특허 등을 신탁받아 특허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수익권을 구입한 투자자는 장기간에 걸쳐 특허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으로 받게 된다. 기술특허이용료는 일반적으로 상품 매출액의 3~5%정도이며, 수익권을 설정할 당시의 예상액보다 이용료 수입이 많으면 투자자들이 큰 이득을 보게 된다.

미쓰비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일괄신탁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우선 카메라 메이커인 니콘과 특허관리신탁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80~90%가 휴면특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경우도 유망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미쓰비시는 특허권뿐 아니라 인기있는 영화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을 대상으로 한 신탁영업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소프트웨어 특허법 처리 연기

유럽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소프트웨어(SW) 특허 법안'에 대해 이의 처리를 연기했다.

C넷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반대 진영의 의견을 수렴, 당초 예정된 지난달 1일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음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유럽의회 노동당의 앨런 매카시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사회당을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에도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승인이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또 지난 8월 27일에는 유로리눅스 등 유럽 오픈소스 진영을 비롯해 일부 컴퓨터 과학자와 경제학자들이 유럽의회 건물 앞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온·오프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U 각국의 서로 다른 SW 관련 법안을 정비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이 법안은 컴퓨터로 작업한 SW에 대해 특허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이와 유사한 법안을 7년 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 법안 반대자들은 '유럽의 현실을 무시한 미국 스타일이며 중소 SW업체와 오픈소스 진영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 '(IT 산업의) 경쟁, 혁신, 성장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매카시 의원은 유럽의회 의회를 받아 런던의 한 지적재산권 단체가 실시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SW를 특허화 하는 것은 독립 소프트웨어 업체를 비롯해 IT 산업의 발전을 가져온다'며 맞서고 있어 팽팽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진다.

만화로 보는 발명 특허이야기 발명가의 10대 자세 ② 감수/오혜경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비논리라고 탓하지 말자

자 이제 발명가의 10대 자세 중 두번째 시간이다! 박사님, 저도 올바른 자세를 위해 오늘 목욕도 하고 왔습니다!

두번째 자세는 '비논리라고 탓하지 말자'이다!!

'논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특허 발명에 있어서는 말이지.

그러나 아이디어를 낚아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발명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

실제 발명사에서 손꼽히는 발명품에서는 논리를 벗어났거나 심지어는 실수나 우연에서 탄생한 발명품도 꽤 많거든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본다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는 상황은 늘 우리 주변에서 혹은 상상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러한 상황은 일관성이 없고 우연적이거나 모순투성일때가 많단다. 우리의 삶이 기계처럼 정확하지는 않잖니

그런데 이 상황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늘 염두해 두고 그것에 맞게만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면

자칫 발명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유로운 사고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논리라고 탓하지 않아야 훌륭한 발명가가 되는 것이라네

박사님!! 어, 똥이?! 오늘은 어떤 질문인가?

박사님 말씀에서 모순을 찾아냈어요!!

박사님께서 비논리를 탓하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늘 제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맞혀주세요!!

나,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 좀 상하잖아!! 투명인간이 많이 되나!!

오늘 질문은 애리한 거리구요!